

보이는 차이나

중국 반도체는 과창판을 보세요

- 최근 중국 증시에서는 과창판(科创板)을 중심으로 AI·반도체·첨단제조 업종 강세 뚜렷. 특히 과창판 상장사의 2026년 1분기 순이익은 +200% YoY 이상 급증하며 실질적인 실적 성장세 확인
- 미국 규제 속 국산 AI 칩·LLM·데이터센터 중심의 독자 생태계 구축 가속화. 화웨이 Ascend, 캄브리온, Hygon 등 국산 공급망 채택 확대와 함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 흐름 강화
- 중국 AI 산업은 모델 성능 경쟁에서 토큰 소비량 기반의 상업화 단계로 진입. AI 사용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ByteDance 등 중국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CAPEX 확대 본격화
- 과창판에 중국 핵심 AI·반도체 기업들이 집중되며 시장 유동성과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확대. 개별 종목 변동성을 고려할 경우 과창50지수, 차이나 반도체 ETF 등 밸류체인 분산 투자 전략이 유효

중국의 AI·반도체 슈퍼 사이클 속 존재감이 커지는 과창판

최근 중국 증시에서는 과창판(科创板)을 중심으로 AI·반도체·첨단제조 업종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중심 슈퍼 사이클 국면에 진입하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여기에 AI 산업 성장과 기술 자립 흐름까지 결합되며 과창판의 존재감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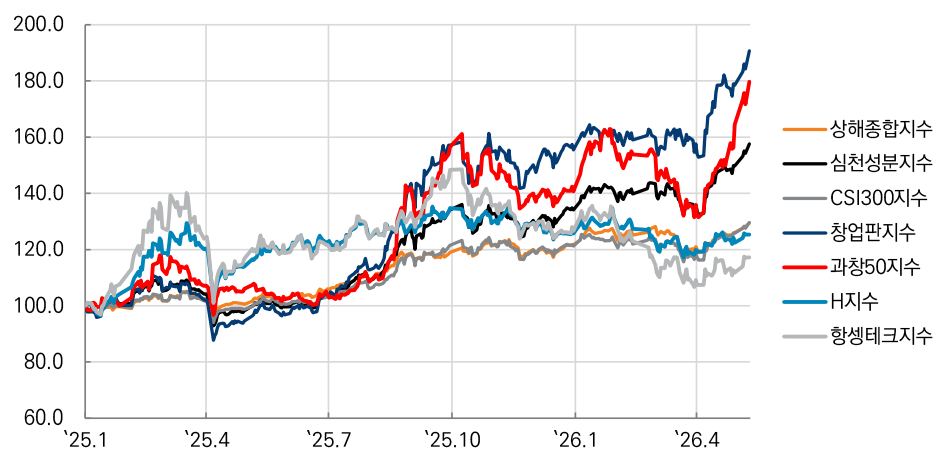
이전의 중국 증시가 금융·부동산·전통 제조업 중심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AI·반도체·첨단제조 중심의 기술 성장 시장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실적 흐름도 차별화되고 있다. 2025년 상하이거래소 상장사 전체 매출은 51.09조위안(+3.07% YoY), 순이익은 4.46조위안(+2.53% YoY)을 기록했고 은행·에너지·국유기업 비중이 높은 메인보드(主板)의 순이익 증가율은 +0.5% YoY 수준에 그쳤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는 유지했으나, 전통 산업 중심 구조만으로는 성장 모멘텀 확대에 한계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반면 중소형 반도체·AI 기업이 집중된 과창판 상장사의 2025년 매출은+10.3% YoY, 순이익은 +26.6% YoY 증가했으며, 2026년 1분기 순이익 증가율은 +207% YoY까지 급등했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된 변화는 AI 서버·GPU·메모리·광모듈 등 AI 인프라 수요 확대가 실제 기업 실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과거 중국 반도체 산업은 정책 기대감과 기술 자립 테마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며 산업 자체의 체력이 강화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과창판은 중국 정부가 2019년 기술 자립과 혁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설립한 시장인 만큼, 최근 중국 AI·반도체 산업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DeepSeek, Kimi, Doubao 등 중국 대형언어모델(LLM) 기업들이 화웨이 Ascend, 캄브리콘, Biren Tech 등 국산 AI 칩 기반의 최적화를 본격화하면서, '국산 모델+국산 연산 인프라' 중심의 중국만의 독자적인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것은 반도체 국산화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 서버,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중국식 AI 인프라의 구조적 재편으로 연결되는 흐름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장 자금 역시 과창판을 중심으로 AI·반도체·첨단제조 업종에 빠르게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증시에서 나타나는 테크주 강세는 단기 테마성 랠리라기보다, 산업 구조 변화와 실적 성장 사이클이 동시에 반영되는 과정에 가깝다.

그림 1. 중국/홍콩 증시 주요 지수 추이 (2025.1.1=100)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AI 산업, 모델 경쟁에서 토큰 경제 단계 진입

중국 AI 산업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료 사용자 확보와 모델 성능 경쟁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제 사용 빈도와 토큰 소비량 확대를 기반으로 수익화를 추진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AI 산업의 경쟁 구도 역시 모델 경쟁에서 사용량 경쟁 단계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이는 중국 AI 산업이 실험과 확장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상업화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6년 들어 가장 큰 변화는 '토큰 경제(Token Economy)' 형성이다. 최근 중국 정부와 산업계는 AI 산업의 핵심 지표를 단순 모델 성능보다 토큰 소비량 중심으로 보기 시작했다. AI 경쟁의 핵심이 기술 시연보다 실제 산업 적용과 서비스 사용량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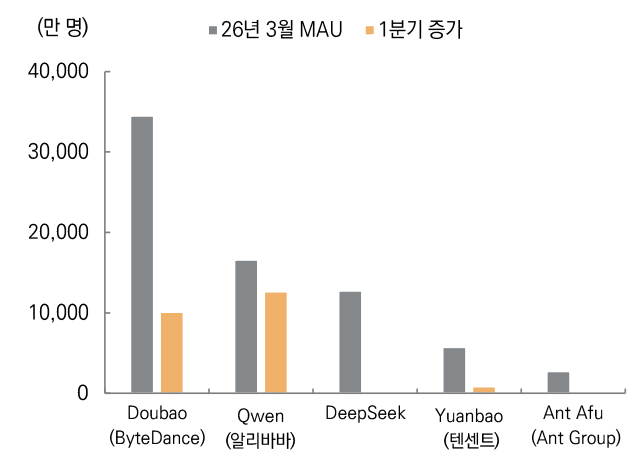
토큰 경제 활성화 배경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DeepSeek, Qwen 등 오픈소스 모델 확산으로 연산 비용이 낮아진 동시에, AI 활용 영역은 단순 챗봇을 넘어 코딩·영상 생성·산업용 에이전트 등 고연산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OpenClaw와 같은 AI 에이전트 구조 보급 이후 AI는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성 도구로 진화하고 있으며, 장문 추론과 멀티모달 처리 수요 증가가 자연스럽게 토큰 소비 확대와 연결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플러스(AI+)’ 전략 역시 AI 기술 자체보다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와 실제 적용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시장에서는 토큰 소비량 증가를 AI 산업 침투율과 연산 수요 확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처럼 해석하기 시작했다.

시장 역시 사용자 수(MAU)보다 실제 토큰 사용량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ByteDance Doubao의 토큰 소비량은 이미 120조 Tokens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5년 말 대비 2026년 초 AI 서비스 사용량은 2배 이상 급증했고, 2024년 대비 100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 빅테크들의 AI 서비스 유료화 전환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 알리바바·텐센트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올해 들어 AI 서비스 가격 체계를 개편했으며, ByteDance 역시 Doubao를 중심으로 이미지·영상 생성, AI PPT, AI Agent 등 고연산 서비스 유료화를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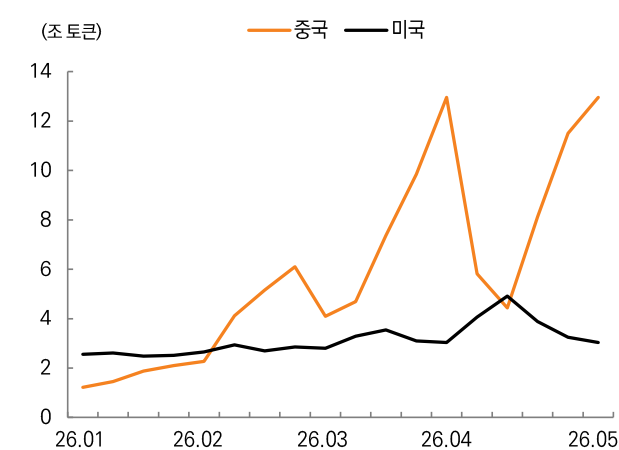
특히 AI 사용량과 토큰 소비량이 실제 비용 구조와 직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AI 산업 역시 무료 사용자 확보 경쟁보다 서비스 사용량 기반의 수익화 모델 구축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림 2. 중국 AI APP 사용자수 상위 모델 (2026년 3월 기준)



QuestMobile TRUTH,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중국 VS 미국 토큰 사용량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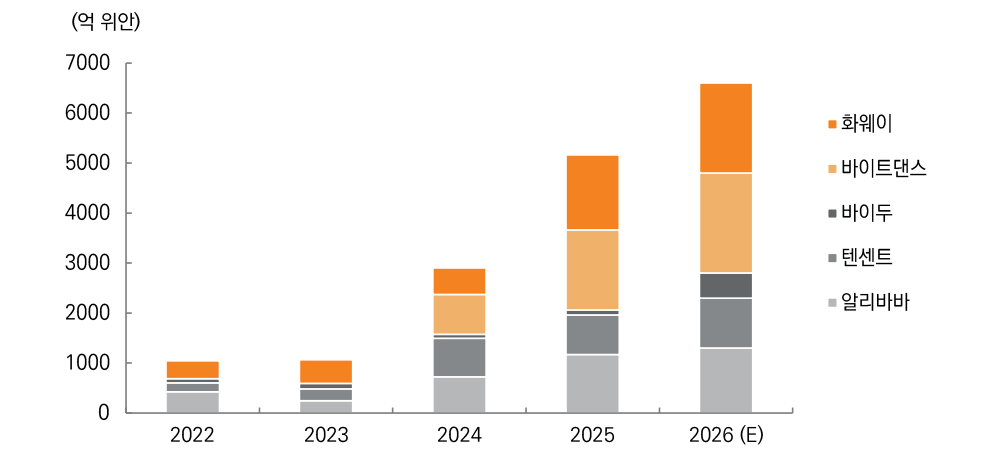
자료: OpenRouter,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빅테크 및 AI 기업의 CAPEX 투자 확대

이러한 토큰 소비량의 급증은 자연스럽게 중국 빅테크 및 AI 기업들의 CAPEX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특히 2026년 들어 DeepSeek와 Kimi(Moonshot AI) 등 중국 주요 LLM 기업들은 공격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며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DeepSeek는 최근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며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최대 450억~500억달러 수준까지 평가받고 있으며, 투자 유치 규모 역시 약 30억~40억달러 수준이 거론된다. Kimi(Moonshot AI) 역시 최근 기업가치가 약 200억달러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GPU 클러스터·데이터센터·추론 서버 확보 등 AI 인프라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 중국 대표 빅테크 중 하나인 바이트댄스는 2026년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기존 1,600억 위안에서 2,000억 위안 이상으로 최소 25% 상향 조정했다. CAPEX 상향의 핵심 배경은 AI 토큰 사용량 급증에 따른 추론 연산 수요 확대와 국산 AI 칩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다. 이와 맞물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기업들의 향후 실적 발표에서도 AI 부문의 수익성 개선과 인프라 투자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그림 4. 중국 주요 빅테크 Capex 추이



자료: 각 사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특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 빅테크 들은 화웨이 중심의 국산 AI 칩 채택을 확대하고 있다. DeepSeek 등 주요 모델 기업들 역시 국산 칩 최적화와 초노드(超节点) 기반 클러스터 구조 도입을 본격화하면서, 데이터센터·네트워크·메모리·전력 인프라 전반의 투자 확대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물론 현재 중국 국산 AI 칩은 절대적인 성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 측면에서 여전히 엔비디아 대비 격차가 존재한다. 다만 미국 규제 환경 속에서 중국 내부 수요가 빠르게 국산 공급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로 SMIC, 화웨이 Ascend, 캄브리콘, Hygon, 등 중국 반도체 대표 기업들은 최근 AI 서버·GPU·첨단 패키징 수요 확대에 힘입어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과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정책적 기대감이나 국산화 테마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실질적인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면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 시장은 중국 AI·반도체 산업을 테마주를 넘어 실적과 성장이 동반되는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재평가하는 모습이다.

중국판 엔비디아 기업들의 실적 성장 본격화

최근들어 중국 AI 산업에서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는 이른바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AI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기술 개발과 국산화 기대감 중심으로 평가받았다면, 최근에는 실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며 산업 자체의 체력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캄브리콘(Cambricon)은 2025년 들어 AI 서버 및 국산 GPU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실적이 급성장하며 흑자전환 흐름에 진입했다. 중국 빅테크와 데이터센터 기업들의 국산 AI 칩 채택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과거 연구개발 중심 기업에서 실제 상업화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Hygon 역시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용 CPU·가속기 수요 확대와 함께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 내 클라우드·정부·통신사 중심의 국산 서버 공급망 구축 흐름 속에서 수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무어스레드(Moore Threads), 메타엑스(MetaX) 등 중국 GPU 스타트업들도 빠르게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아직 엔비디아 대비 절대적인 성능과 CUDA 기반 소프트웨어 생태계 측면에서는 격차가 존재하지만, 중국 내부 AI 수요 확대와 국산 공급망 강화 흐름 속에서 실제 고객 확보와 상업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표 1. 중국 과창판 상장 대표 반도체 기업 1Q26 실적

종목코드	기업명	매출액 (억 위안)	% YoY	지배주주 순이익 (억 위안)	% YoY	R&D (억 위안)	매출액 대비 R&D 비중 (%)
688256.SH	캄브리콘	28.85	159.6%	10.1	185.0%	3.2	11.2%
688041.SH	Hygon	40.34	68.1%	6.9	35.8%	12.1	30.0%
688802.SH	Meta X	5.62	75.4%	-1.0	적자폭 57.5% 축소	2.5	45.1%
688795.SH	Moore Threads	7.38	156.4%	0.3	흑자 전환	3.7	50.0%
688008.SH	Montage Tech	14.6	19.5%	8.5	61.3%	1.9	13.0%
688521.SH	VeriSilicon	8.36	114.47%	-3.4	적자폭 54.69% 축소	4.9	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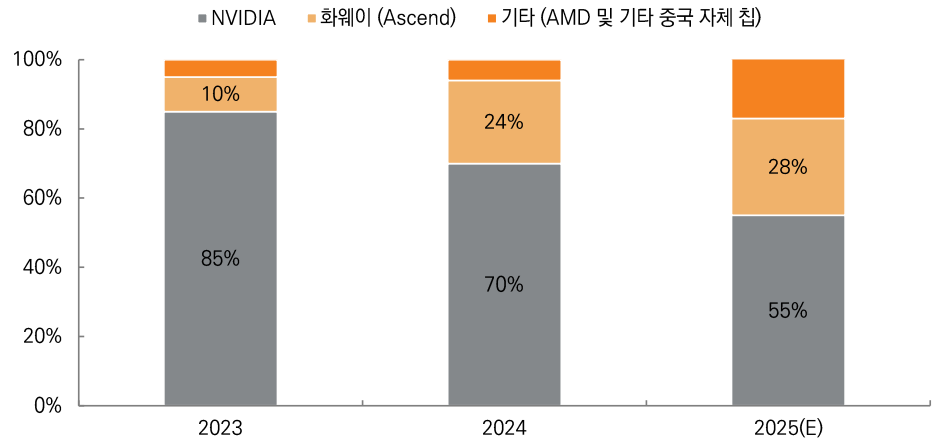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단순한 정책 지원의 결과를 넘어서, 자체 AI 수요 확대와 국산 칩 채택률 증가가 실질적인 재무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글로벌 AI 산업의 슈퍼 사이클 속에서 중국이 독자적인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AI 인프라 투자가 GPU를 넘어 첨단 패키징, HBM, 광모듈, 전력 및 데이터센터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에도 AI 수요 증가와 기술 자립 기조가 맞물리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과거의 주가가 정책 기대감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실제 고객 확보와 출하량 증가,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면서 산업 성장의 질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중국 AI 산업이 독자 생태계 구축 단계에 안착할수록, 과창판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한 실적 성장과 시장의 재평가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5. 중국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



자료: IDC, 미래셋증권 리서치센터

투자 시사점: 과창50지수와 중국 반도체 ETF에 주목

향후 중국 AI·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결국 과창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과창판은 중국 정부가 기술 자립과 혁신 기업 육성을 목표로 만든 시장인 만큼, 현재 중국 AI·반도체·첨단제조 핵심 기업들이 가장 밀집된 구조다. 최근 과창판 지수가 출범 이후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 역시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과창판을 비롯한 중국 AI·반도체 업종 강세의 본질은 'AI 사용량 증가 → 토콘 소비 확대 → 연산 수요 증가 → 인프라 투자 확대 →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산업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최근 캄브리콘, Hygon, SMIC 등 과창판 및 중국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실적 성장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내부 AI 수요 확대와 국산 칩 채택 증가가 실제 매출과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과창판에 메모리 대표 기업인 CXMT(창신메모리)가 상장 대기중이며, 바이두의 AI 칩 자회사 Kunlun(昆仑芯) 역시 홍콩과 과창판 상장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이미 홍콩 증시에 상장된 Biren Tech(壁仞科技) 역시 과창판 추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핵심 반도체 기업들이 과창판으로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신규 상장 기업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중국 AI·반도체 산업의 핵심 자산들이 과창판에 집결할수록 시장 유동성과 기관 자금 유입, 밸류에이션 체계 역시 함께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과창판을 중심으로 AI·반도체·첨단제조 기업들이 중국 증시의 핵심 성장 축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에 시장이 더욱 주목하기 시작한 모습이다.

다만 중국 AI·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엔비디아 대비 GPU 성능, CUDA 기반 소프트웨어 생태계, 첨단 공정 등 핵심 영역에서 격차가 존재하며,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와 정책 변수에도 민감하다. 또한 과창판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고 일부 기업은 아직 실적 안정성과 밸류에이션 부담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 반도체 투자에서는 특정 종목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과창판 및 중국 AI·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할 수 있는 과창50 지수 또는 중국 반도체 테마형 ETF인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 (03191.HK), Tiger 차이나 반도체 ETF (396520) 등이 현실적이고 유효한 대안이다. 특히 개별 종목 접근이 쉽지 않은 과창판 핵심 기업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변동성과 정책·규제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면서 중국 AI 산업 성장 흐름에 보다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슈퍼사이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중국 증시는 여기에 기술 자립과 토큰 경제 확산, 그리고 국산 칩 기반의 공격적인 AI 인프라 투자라는 독자적인 성장 축이 결합되어 있다.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내부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이것이 다시 서비스 수익화와 인프라 재투자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 결과 중국 테크 산업은 이제 정책 테마를 넘어, 실질적인 실적과 투자가 뒷받침되는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다는 판단이다.

표 2.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 주요 편입 종목

구분	기업명	종목코드	세부 사업 영역
파운드리	SMIC 화흥반도체	688981 1347 HK	로직·혼합신호 파운드리, 14nm 및 성숙공정 중심 성숙공정 특화 (전력반도체, 아날로그, MCU, CIS 공정)
장비	베이팡화창 (NAURA) AMEC 징성기전 HWATSING 창촨테크 PIOTECH	002371 688012 300316 688120 300604 688072	반도체 전공정 장비 (CVD, PVD, ALD, 에칭) 에칭 장비, MOCVD (LED·전력반도체) 반도체·태양광용 단결정 성장 장비, SiC 결정 성장 CMP 장비 (웨이퍼 평탄화), 소재·소모품 일부 테스트 장비 (ATE), SoC·메모리 테스트 ALD 장비 (첨단·성숙 공정 모두 대응)
IDM	항주 SILAN전자	600460	전력반도체, 아날로그 IC, 일부 제조·설계 일체
패키징·테스트	통푸마이크로 강소장전과기JCET 화천과기	002156 600584 002185	고급 패키징 (FC, SiP), AMD 협력 OSAT 대행사, FC·SiP·WLCSP 전통 OSAT, 메모리·아날로그 패키징
설계 (Fabless)	HYGON GIGADEVICE CAMBRICON MONTAGE OMNIVISION HORIZON ROBOTICS 자광국미 MAXSCEND	688041 603986 688256 688008 603501 9660 HK 002049 300782	서버·HPC용 CPU, x86 아키텍처 기반 범용 프로세서 NOR Flash, MCU, 일부 특수 DRAM·센서용 메모리 AI 가속기, 데이터센터·엣지·자동차용 AI 칩 서버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 (RCD, DB), DDR 컨트롤 CMOS 이미지센서 (CIS), 모바일·자동차·보안카메라 자동차 ADAS·자율주행 AI SoC, 엣지 AI 스마트카드·보안칩, MCU, 특수용 반도체 RF 프론트엔드 (PA, 스위치), 스마트폰 통신칩

자료: Global X HK,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과창50지수 구성 성분 상위 10위 기업 (시가총액 순)

종목코드	기업명		업종 분류	시가총액 (억 위안)
688981	SMIC	中芯国际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9774.46
688041	Hygon Information	海光信息	CPU, 서버 프로세서	8116.36
688256	Cambricon	寒武纪	AI 반도체 (GPU/AI 칩)	8028.77
688008	Montage Technology	澜起科技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	2941.84
688012	AMEC	中微公司	반도체 장비	2435.26
688525	BIWIN Storage	佰维存储	메모리 (NAND/스토리지)	1454.74
688072	Piotech	拓荆科技	반도체 장비 (증착)	1433.31
688521	VeriSilicon	芯原股份	반도체 IP 설계	1430.44
688702	Sanechips Technology	盛科通信	네트워크 스위치 칩, 통신 반도체	1222.62
688111	Kingsoft Office	金山办公	소프트웨어, 오피스 프로그램	1211.72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5/12 기준)

중국 AI 산업 유니버스

구분	티커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달러)	기준일 증가 (위안/HKD)	수익률 (%)				Valuation		
					1W	1M	3M	YTD	P/E (TTM)	P/E (2026E)	P/B (MRQ)
빅테크	9988.HK	알리바바그룹홀딩스	326.75	133.30	1.2	6.2	-16.9	-6.7	24.9	23.8	2.2
	9618.HK	JD	42.62	118.40	1.4	6.3	11.5	9.9	15.0	11.0	1.4
	0700.HK	텐센트	532.43	457.20	-3.3	-9.4	-17.0	-23.7	16.7	14.9	3.3
	3690.HK	메이투안	66.36	84.15	-0.4	-3.9	-5.2	-18.5	-20.1	-38.4	3.1
	9888.HK	BAIDU	48.57	139.70	13.8	28.6	-2.6	6.2	66.6	20.8	1.3
	1024.HK	KUAISHOU	29.21	52.60	18.3	16.5	-25.3	-17.7	11.1	12.9	2.6
반도체	0981.HK	SMIC	94.48	76.60	6.2	31.5	7.1	7.2	115.1	68.4	3.7
	1347.HK	화홍반도체	31.57	129.50	7.0	40.8	27.8	74.3	526.9	155.4	4.4
	002371.SZ	베이팡화창	61.59	581.45	8.3	21.9	20.4	26.7	75.6	52.4	10.7
	688012.SH	AMEC	35.59	388.45	3.2	19.9	10.8	42.4	89.2	75.4	10.0
	600584.SH	JCET	14.45	55.24	21.2	28.4	19.5	50.2	59.8	47.4	3.4
	002156.SZ	통푸마이크로	13.19	59.48	14.9	31.5	23.5	57.8	62.4	57.1	5.8
	603501.SH	웨이얼반도체	18.87	103.31	5.1	8.3	-12.3	-17.9	35.4	29.3	3.9
	603986.SH	GigaDevice	36.65	353.55	13.0	33.4	22.0	65.0	86.2	60.8	9.8
	688041.SH	Hygon	118.62	349.19	17.9	50.6	34.8	55.7	297.7	179.3	34.5
	688256.SH	Cambricon	117.34	1,277.87	12.1	57.4	73.1	40.6	295.5	149.4	62.4
	688795.SH	Moore Threads	49.26	717.12	0.2	22.4	25.2	22.0	-392.4	-579.8	29.3
	688002.SH	Meta X	45.43	776.90	2.5	26.9	51.0	33.9	-474.0	8212.5	23.7
LLM	6082.HK	Biren Tech	17.18	55.15	13.2	56.2	58.2	60.0	-7.4	-117.6	-5.1
	2513.HK	Zhipu AI	47.83	840.00	-12.2	-10.3	164.3	538.8	-176.3	-70.4	-41.8
H/W	0100.HK	MiniMax	27.66	690.50	-14.0	-30.8	28.1	100.1	-14.9	-46.5	-10.5
	601138.SH	FOXCONN	186.77	64.40	2.4	13.9	14.9	4.4	31.4	21.0	7.3
	603019.SH	중과서광	20.83	97.42	4.8	14.2	6.8	13.8	64.3	48.7	6.3
	000977.SZ	남조정보	15.69	73.13	4.8	8.3	18.0	9.8	42.0	31.1	4.8
	000725.SZ	BOE	22.49	4.17	2.2	3.2	-3.5	-1.0	26.0	17.8	1.1
	002475.SZ	임신정밀	82.19	77.19	15.2	32.7	49.8	36.5	32.7	26.0	6.3
	0992.HK	레노버	20.52	12.95	11.3	28.1	38.5	39.8	13.9	12.3	2.9
	2382.HK	세우광학테크	8.88	63.50	-3.9	1.1	7.6	-3.1	13.5	14.7	2.2
	0285.HK	비야디전자	8.15	28.32	5.1	0.8	-14.6	-15.8	16.4	14.7	1.7
	002230.SZ	산비정보	17.14	48.83	2.2	2.5	-14.1	-2.9	135.9	92.8	6.2
S/W	688111.SH	Kingsoft Office	17.71	261.50	3.8	10.9	-16.7	-14.8	33.4	48.5	8.0
	600588.SH	용우네트워크	5.94	11.90	1.9	-1.0	-19.5	-10.3	-29.6	396.7	5.9
	0020.HK	SENSETIME	10.73	1.99	-1.5	-1.0	-18.4	-9.5	-43.0	-52.2	2.8
	1357.HK	MEITU	3.03	5.18	23.0	19.9	-22.5	-26.0	36.8	17.1	3.8
	3888.HK	Kingsoft	4.24	24.04	5.1	4.6	-12.7	-15.5	15.0	18.8	1.2
	0268.HK	금점소프트웨어	3.94	8.70	1.9	5.5	-22.3	-34.5	300.2	63.1	3.4
통신 (서비스)	600941.SH	차이나모바일	242.27	97.37	0.8	3.6	3.8	-3.6	15.5	16.0	1.4
	601728.SH	차이나텔레콤	79.11	6.12	1.5	5.7	6.4	-2.9	17.7	18.5	1.2
	600050.SH	차이나유니콤	21.20	4.64	2.7	1.8	-4.7	-9.2	16.8	17.3	0.8
통신 (CPO/PCB)	000063.SZ	ZTE	24.97	38.09	3.8	6.4	1.4	0.7	40.7	26.4	2.4
	300308.SZ	중지쉬창	165.67	1,017.99	18.7	38.7	83.4	67.1	75.8	38.9	31.9
	002916.SZ	쎌난서킷	32.83	329.79	5.5	25.9	33.7	42.0	61.8	42.4	12.4
	002281.SZ	광신과기	23.75	201.50	39.7	86.9	184.2	188.1	156.9	97.9	15.7
냉각	002837.SZ	임웨이커	14.28	99.99	5.7	0.9	-3.7	-6.5	202.5	79.5	28.2
휴먼노이드	9880.HK	유비테크	7.14	111.00	3.0	1.9	-13.5	-12.1	-71.8	-155.4	7.0
	2498.HK	ROBOSENSE	2.00	32.32	-1.5	-10.9	-5.9	-11.7	-96.9	133.4	3.7
	601689.SH	탁보그룹	17.03	67.05	11.5	11.0	-7.6	-13.1	42.1	34.6	4.7
	002050.SZ	삼화	29.88	50.92	8.5	13.5	-4.5	-7.7	52.4	45.0	6.6
	300124.SZ	후이촨테크	29.85	75.45	10.0	10.8	-3.7	0.2	43.1	33.6	5.6
	601100.SH	항립유항	22.04	112.50	7.2	11.0	-9.1	2.4	54.5	43.0	8.4
자율주행	9660.HK	Horizon	12.52	6.69	-9.3	-6.8	-21.9	-22.7	-8.5	-29.0	7.0
	2533.HK	Black Sesame	1.62	17.77	-2.9	8.7	-6.6	-7.8	-8.0	-11.7	-1.2

* 추천종목 아님

자료: Wind,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26.5.12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